

# 석유화학, 한양대 화학공학과 선호

한양대 화학공학화가 석유화학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과로 선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9년 산업계 관점에서 각 대학을 평가한 결과, 석유화학 분야 14개 대학의 화학공학과 가운데 한양대가 최고 점수를 받았고 중앙대, 고려대, 전남대, 경희대, 충남대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화장품 분야는 고려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한양대, 단국대, 성균관대가 뒤를 이었으며, 제약은 고려대 다음으로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이 높았다.

산업계 관점의 대학 평가는 대학 교육과정과 성과가 산업현장의 요구에 얼마나 들어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관련기업의 임원과 교육과정 전문가 등이 분야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필수 교과목 등을 직접 분석하며, 2009년에는 석유화학, 화장품, 제약기업 32사에서 최근 졸업생을 많이 취업시킨 20여개 대학교를 상대로 교육과정 일치도, 교육과정 현장 적용성, 교육성과, 산업체 기여도 등 4개 영역을 평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평가 결과를 전국 대학에 배포해 관련학과의 교육과정 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0/5/24 · 31>